

#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관광 구례’ 재도약 힘 쏟겠다”



김순호 구례군수 민선 8기 1주년 인터뷰

### 산수유꽃축제·300리 벚꽃축제 성공 개최...관광객 전년비 80% 증가 오산권 관광단지 조성·지리산 스카이런 설치...치유 병원 건립 계획도

“구례군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체류형 관광 시설을 확충하고 ‘섬진강 통합관광시대’ ‘치유산업 선도도시’ 등 구례의 장점을 살린 현안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 뒤 남도의 봄을 알리는 첫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구례군은 오산권역 관광레저 집적단지와 지리산 온천 골프장 등에 대한 조성 계획을 잇따라 밝히며 ‘체류형 관광도시’ 면모를 다져가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두고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긴밀하고 끈질긴 소통으로 구례군의 혁신적인 미

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구례군은 올해 봄 산수유꽃축제와 구례 300리 벚꽃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봄꽃 대표 관광지 입지를 다졌다.

이들 축제 관광객은 1년 전보다 80% 늘어난 110만명을 기록했다. 유인인구 매출액은 200억원에 달했고, 전시장 매출액도 전년보다 50% 늘었다.

구례군은 머뭇대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고 있다.

오산권역에는 2000억원 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산동면에는 2170억원 사업비를 들여 항암 농식품 제조공장과 치유 병원, 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산동 온천지구에 1000억원 규모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온천권 관광단지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다.

구례 여행에서 즐길 거리를 넓히기 위해 지리산 정원 안에는 국내 최대 경사도를 자랑하는 쪼와이어와 모노레일 등 ‘지리산 스카이런’을 설치했다.

구례군은 ‘구례읍 권역’ ‘섬진강 권역’ ‘지리산은천 권역’ ‘화엄사·피아골 권역’ 등 4대 권역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곡성·광양·하동과 ‘섬진강 통합관광시대’를 선포하고 서로의 관광 축제를 연계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김 군수는 “구례가 ‘안심·감성 여행지’로 입소문이 난 덕분에 수년 전 40곳도 되지 않았던 커피 전문점이 올해 들어 100곳이 넘게 생겼다”며 “구례군 젊은 공무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홍보 조직 ‘단체 투어단’이 소셜미디어에서 관광 명소와 커피 전문점, 맛집, 숙소 등을 알린 덕분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체류형 관광도시와 함께 ‘치유산업 선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

올해 4월 구례군은 ‘탄소중립 휴 살리기’를 전국에서 처음 선포하며 생태도시 구례의 위상을 높이기 시작했다. “휴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를 내건 구례군은 용방면 신지리와 죽정리에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를 준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김 군수는 민선 7기에서 ‘천은사 산문 개방’과 ‘약취 축사 철거’, ‘친환경 농업 저해 철축 재배 문제’ 등을 해결하며 지역 현안을 군민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지난 민선 7기 임기 중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읍면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미래 사업을 구상하고 현안을 해결했다.

그는 “지리산 케이블카나 온천 골프장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반대 목소리도 생길 수 있다”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다른 소재로 알려진 천은사 통행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아트페어·마술쇼...주말이 즐거운 순천만정원박람회

### 조직위, 이달까지 문화행사 다채...뮤지컬 갈라쇼·거리 춤 공연 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여름철을 맞아 주말마다 다채로운 공연을 연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7월 한 달 동안 매 주말 오전그린광장 등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획 공연 ‘오천그린아트페어’와 실내에서 즐기는 마술 공연 ‘주말 펀(FUN)쇼’,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어싱 페스타’, ‘가든 클래식’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이달 기획 공연인 ‘오천그린아트페어’는 생활 속

문화공연으로 탈바꿈한 오전그린광장을 다룬다.

이 밖에도 오전그린광장에서 주말 저녁에는 창작 거리예술 공연과 가수 바다의 ‘뮤지컬 갈라쇼’(9일), 가든뮤지컬페스티벌, 거리 춤 공연 등이 펼쳐진다.

마술 공연 ‘주말 펀쇼’는 매주 토요일요일 습지센터 1층 영상관에서 열린다.

과학원리를 이용한 마술과 빛을 활용한 레이저 쇼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6일에는 정원박람회 홍보대사와 박람회

장 땅을 맨발로 밟는 ‘어싱 페스타’가 열린다.

매 주말 오후 2시 국가정원 개울길광장에서는 시원한 그늘에서 잔잔한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화-금 오후 7시, 토 오후 6시) 오전그린광장에서 진행되는 요가 강습도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은 시원한 공간, 다양한 공연, 특별한 감성 삼박자를 갖춘 최고의 여름 휴가지”라며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여름 정원을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지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시, 청년 창업자금 지원 확대

### 18.6% 늘어난 12억900만원

여수시가 청년 창업자 자금으로 전년보다 18.6% 늘린 12억900만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여수시가 올해 청년창업자에게 지원한 창업자금은 12억900만원(68명)으로, 1년 전 10억1900만원(57명)보다 18.6%(1억9000만원) 증가했다.

여수시는 올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청년도전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소상공인 맞춤형 방문컨설팅’ 등 시비 자체 사업 2건을 추진했다.

올해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서 43명은 8억7900만원 상당 국·도비를 지원받았으며, 25명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3억3000만원을 받았다.

재단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성공 청년 창업자로 안착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돕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원한 청년창업 185개 사업자 중 60~70%가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평균적인 생존율 30~40%보다 높은 편이라고 여수시 측은 설명했다.

올해 여수시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예비 창업자들은 오는 11월까지 시내 주요 상가에서 다양한 소재의 창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태완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장은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통해서도 입증되듯 시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청년 5개년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등 ‘일자리 가득한 꿈이 실현되는 청년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휴가철 백운산 4대 계곡 아름답게 머물다 갑시다”

### 광양시, 무단투기 등 단속

광양시가 17일부터 8월18일까지 계곡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공중화장실 청소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광양시는 무더위를 피해 백운산 4대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곡 주변 환경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자원순환과 전 직원을 4개반으로 편성해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백운산 4대 계곡(봉강·옥룡·진상·다압면)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도로변 청소와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주기를 주 2일 → 주 7



광양 백운산 4대 계곡 중 하나인 어치계곡.

(광양시 제공)

일로 확대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식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99개소 청소를 주 2회 → 일 2회로 늘리기

로 했다. 특히 오수 다량 배출사업장(24개소)에 대해 상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보성 제암산 휴양림 물놀이장 22일 개장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이 오는 22일 문을 연다.

보성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오는 22일부터 8월20일까지 물놀이장 2곳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보성군은 휴양림 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안전 교육을 마치고, 물놀이장에 안전요원 5명을 배치했다.

제암산 휴양림 물놀이장은 모두 계곡물로 채워지고, 야영장 등 숙박시설이 가까운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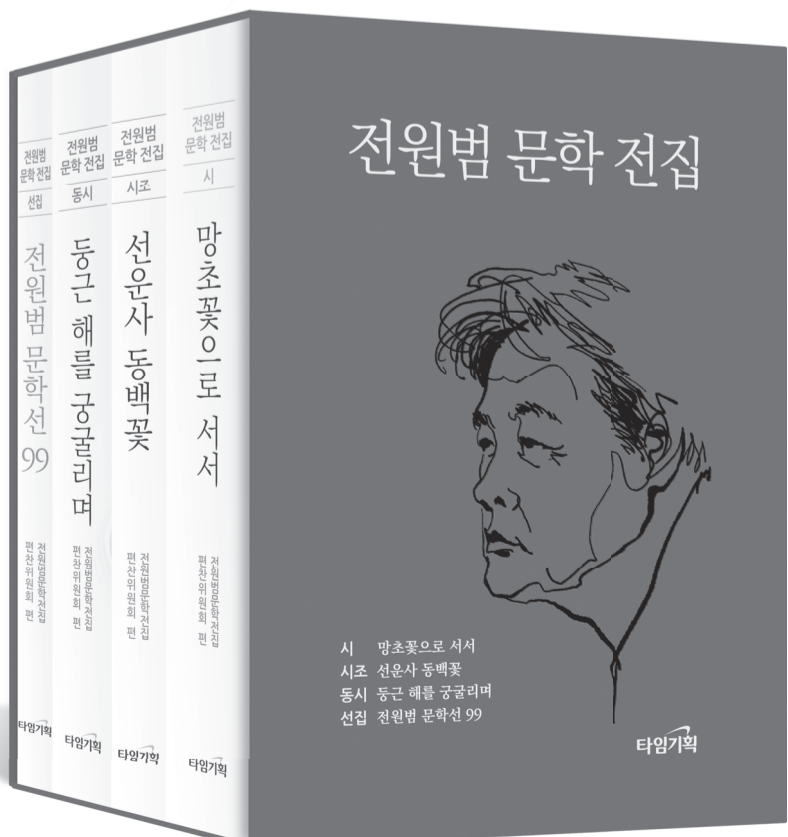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160ha 면적에 계곡과 48개의 숙박시설, 야영장 51곳이 있고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곰썰매’ 등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

다. 인기 시설인 곰썰매는 높이 15m에서 길이 238m 규모로, 썰매를 타고 숲속을 가르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접근 길도 제암산 자연휴양림의 자랑거리이다.

휴양림에서는 숲 해설 교육과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들어 70여 곳 6500명이 교육과 대학교 MT를 신청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제암산 자연휴양림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18 한국관광의 별’, ‘5·6월에 가볼 만한 곳 선정’, ‘8월 걷기 좋은 길’, ‘2019 코리아 유니크베뉴 30선’, ‘2023 전남도 유니크베뉴’ 등에 선정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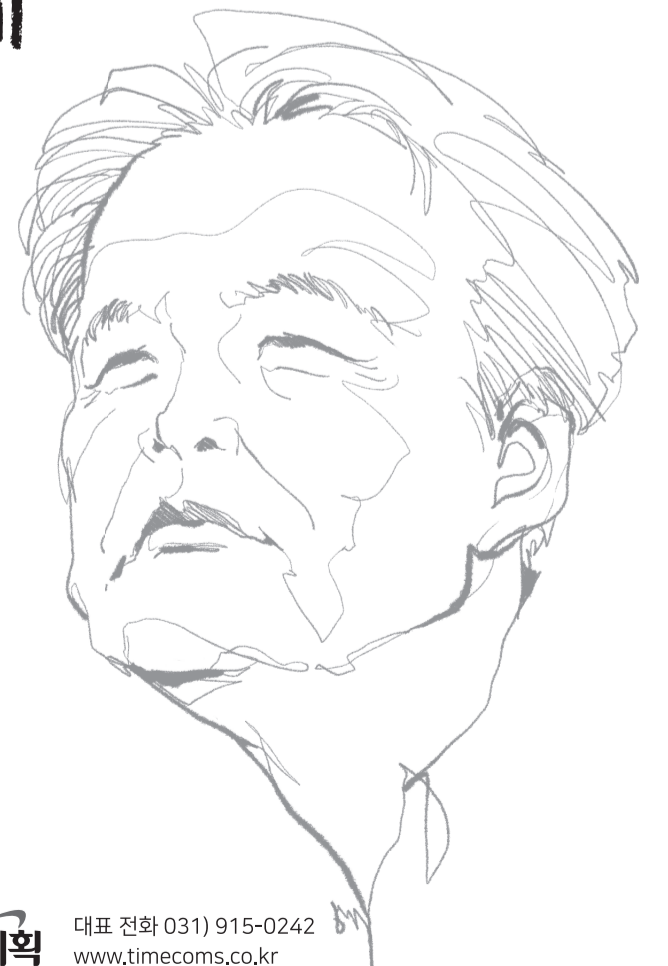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